

보도시점 2023. 9. 13.(수) 09:00 배포 2023. 9. 13.(수) 09:00

8월 고용동향, 건설업 고용현안 등 점검,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방안 마련하여 10월중 발표

- 제9차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통해 8월 고용동향 점검, 건설업 고용현안 등 논의
-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 지자체 협의를 거쳐 10월 중 발표 추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9.13(수) 8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9차 회의를 열어 8월 고용동향과 함께 건설업 경기·고용현황 및 정책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발표 예정인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① 8월 고용동향 및 건설업 고용현황 점검 : 8월 고용률(63.1%)·실업률(2.0%)은 각각 역대 최고,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취업자수도 지난 7월 기상악화 등에 따른 일시적 둔화에서 벗어나 전년동월대비 26.8만명 증가하는 한편, 전월비로도 7.7만명 증가하여 2개월만에 증가 전환 하는 등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또한,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8.10일) 등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확대는 향후 서비스업 고용 호조세 지속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근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제조업·건설업 고용부진 등에 대해서는 계속 유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고용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②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방안 : 정부는 그간 2차에 걸쳐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마련·발표(3·7월)하였고, 지난 7월에는 빈일자리수가 전년동월대비 1.3만명 감소하는 등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비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유출과 고령화, 노후화된 산업기반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장기화·고착화되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오늘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통해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였다. 지자체별 여건·수요에 따라 빈일자리수가 큰 업종과 구인난 현장 체감도가 높은 업종을 선정·타겟팅하여 맞춤형 대응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늘 논의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협의를 거친 후, 10월 중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시동 (044-215-8530)
		담당자	사무관	김요균 (044-215-8531)
			사무관	김범석 (044-215-8533)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수급대책과	책임자	과 장	김준호 (044-202-7962)
		담당자	서기관	이민진 (044-202-7214)

1 기재부 1차관 모두발언

< 8월 고용동향 >

- 조금전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고용률은 63.1%로 8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은 2.0%로 8월 기준 역대 최저('99.6월 이후)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취업자수도 지난 7월 기상악화 등에 따른 일시적 둔화에서 벗어나
전년동월대비 26.8만명 증가하는 한편,
전월비로도 7.7만명 증가하여 2개월만에 증가 전환하는 등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2.8)80.7 ... ('23.4)35.4 (5)35.1 (6)33.3 (7)21.1 **(8)26.8**
 - 취업자 증감(전월비, 만명): ('22.8)2.6 ... ('23.4)△4.7 (5)9.2 (6)△4.9 (7)△9.6 **(8)7.7**
- 이는 7월 집중호우 영향이 컸던 건설·농림어업 감소폭 축소와 함께,
보건복지·숙박음식업 중심으로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된 데에 기인합니다.
 - * 업종별 취업자수 증감('23.7→8월, 만명)
 - [건설]△4.3 → △0.1 [농림]△4.2 → △1.9 [보건복지]14.5 → 13.8 [숙박음식]12.5 → 12.1
-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8.10일)에 따라
8월 중국인 방한 관광객수가 전년대비 26만명 증가(잠정)하고,
올해들어 8월까지 누적 100만명(잠정)을 상회하는 등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도소매·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 고용 호조세 지속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중국인 방한객(만명): ('23.2)4.6 (3)7.3 (4)10.6 (5)12.8 (6)16.8 (7)22.5 (8)29.5(잠정) <1~8월 누계>106.5(잠정)
 - ↳ 전년비 증감(만명): ('23.2)2.9 (3)5.9 (4)9.6 (5)11.7 (6)15.5 (7)20.7 (8)26.4(잠정)
- 다만,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은 작년 기저효과('22.8월 +24.0만명, 연평균 13.5만명) 등에 따라
취업자수 감소폭이 확대되고, 건설업 고용부진도 지속되어
이에 대해 계속 유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 제조업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2.8)24.0 ... ('23.4)△9.7 (5)△3.9 (6)△1.0 (7)△3.5 **(8)△6.9**
 - * 건설업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2.8)△2.2 ... ('23.4)△3.1 (5)△6.6 (6)△6.2 (7)△4.3 **(8)△0.1**

□ 청년 고용의 경우, 인구감소화 영향 등으로 인한
취업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47.0%), 실업률(4.5%)이
8월 기준 각각 역대 2위('82.7월 이후), 최저('99.6월 이후) 수준으로
과거대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청년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2.8)8.1 ... ('23.4)△13.7 (5)△9.9 (6)△11.7 (7)△13.8 **(8)△10.3**

* 청년 고용률(%): ('22.8)47.3 ... ('23.7)47.0 **(8)47.0** / 청년 실업률(%): ('22.8)5.4 ... ('23.7)6.0 **(8)4.5**

* 8월 청년지표 순위(% 연도): <고용률> [1위] 47.3('22) [2위] 47.0('23) <실업률> [1위] 4.5('23) [2위] 5.4('22)

□ 특히, 핵심 취업연령대인 20대 후반의 8월 고용률(72.5%)은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5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졸업자 (청년층 부가조사, 5월 통계청)
고용률도 72.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 25~29세 고용률(8월, %): ('19)70.5 ('20)67.0 ('21)69.0 ('22)71.3 **(23)72.5**

* 청년 졸업자 고용률(5월, %): ('20)65.3 ('21)67.1 ('22)71.6 **(23)72.1**

○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은 126만명으로
'20년(166만명)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졸업자 중 미취업 청년 비중 또한 27.9%로
역대('04~)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 졸업자 중 미취업 청년 수(5월, 만명): ('20)166.0 ('21)154.8 ('22)133.0 **(23)126.0**

* 졸업자 중 미취업 청년 비중(5월, %): ('20)34.7 ('21)32.9 ('22)28.4 **(23)27.9**

□ 다만, 타 연령 대비 청년층의 고용 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올해 들어 '쉬었음' 등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도 증가하고 있어,

○ 일자리TF를 통해 청년층의 고용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8월 고용동향 및
최근 건설업 고용동향의 특징 및 정책방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방안(案) >

- 정부는 그간 2차에 걸쳐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난 7월에는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빈일자리수가 전년동월대비 1.3만명 감소하는 등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으나,
 - * 빈일자리수/증감(전년동월비, 만명): (22.10)21.3/2.2 (11)20.4/1.7 (12)21.5/1.8 (23.1)18.4/△2.2 (2)21.5/△0.5 (3)21.3/△0.7 (4)21.6/△0.4 (5)21.4/△1.1 (6)21.4/△1.9 (7)21.6/△1.3
 - 일부 지역은 인구유출과 고령화, 노후화된 산업기반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장기화,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부는 지난 회의에 이어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구체화하여 향후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0월중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고용부 차관계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2 고용부 차관 모두발언

- '23년 8월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26.8만명 증가하여, 양호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건설업과 제조업 고용이 일부 둔화되고 있으나, 대면서비스업, 보건복지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그러나, 최근 10대와 20대 초반 청년 취업자가 지속 감소하고 단순히 쉬고 있는 청년이 약 40만명(23.8월)에 이르는 등 청년층 일자리는 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 이에 정부는 저성과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하여
내년에는 청년 일자리 정책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 먼저, 10대·20대 초반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와 대학 단계에서 진로탐색,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충*하고,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 ('23) 대학 12개교 3만명 → ('24 정부안) 대학 50개교 12만명, 고교 지원 신설
** ('23) 2.6만명 → ('24 정부안) 4.8만명
- 또한,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이
조기 퇴직하여 니트(NEET)화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 취업초기 청년의 직장 적응을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실직한 청년에게는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전문상담 등을 제공하는 토탈케어 서비스 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 * 가칭청년성장프로젝트('24. 정부안: 신규, +281억)
-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층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한편,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 빈일자리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관계부처와 함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내년에는 관련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효율적 사업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신설·확대하겠습니다.
- 특히, 제조업 등 지역의 구인난 업종·기업에
채용장려금 등을 우대 지원하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 ('23) 356억원 → ('24. 정부안) 652억원(+296억원)

-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제3차 빈일자리 대책으로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인력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상이하므로, 이번 대책에서는 광역단체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지역별 빈일자리 규모가 가장 큰 업종과(예: 식료품업, 보건복지업) 구인난 현장 체감도가 높은 업종(예: 반도체업)을 타겟팅하여, 자치단체 주도로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공모사업 등을 활용하여 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